



2대리구 지묘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13 e v r a r d - 1 - 1 2 2
2 0 2 2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3주일, 생명 주일 2022. 05. 01. (다해) 제2319호

제1독서 사도 5,27-32.40-41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1-19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곡성당 주임 | 김성은 요한 신부

하느님 현존을 체험한 이들은 그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성인들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은 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하느님이 계심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의 수난을 기쁘게 여겼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두 번이나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제자들의 삶은 곧바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열정은 식어 있었습니니다. 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는 없었습니니다. 무슨 권한과 권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게 됩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뿐이었습니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참 실망스럽고 서글프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서글픈 현실 앞에서도 제자들의 가능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니다. 고기잡이까지 실패해서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서는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자상하게 아침까지 손수 차려주십니니다. 세 번이나 스승을 배반했다는 기억에 기가 죽은 베드로에게는 다시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십니니다. 사도들에게 그들의 할 일, 즉 양들을 보살피는 중대한 임무를 주십니니다. 그들의 그 절망의 상태를 보고서도 말입니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니다. 다 포기하고 예전처럼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심문당하고 모욕당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할 정도로 당당해진 것입니니다. 이처럼 '이래서 뭐가 되겠나'하는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짧은 말마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에 그 현실이 너무나 험잡고 절망적일 때가 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봅시다. 그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니다. **필문**

아가의 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아가는 사랑 이야기다. 사랑하는 남녀가 주고받는 말마디들 사이에서 사랑에 대한 사유가 넘쳐난다. 다소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사랑 표현이 성에 있어 보수적인 유다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툰 우리 신앙인에게도 낯설게 다가온다. 과감한 성적 표현에 대한 논란은 대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비유로 이해하는 선에서 갈무리되곤 했다.

본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알맞은 협력자였으나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은 이유로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은 여자의 주인이 되어버렸다(창세 3,16). 조화와 질서의 남녀관계가 주종의 억압적 관계로 돌변했고 함께 사는 것은 알맞은 협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과 고통이 되어버렸다.

아가의 이름 모를 남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깨져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서로는 서로의 것이 된다.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아가 2,16)이라 되뇌는 여인의 모습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서로에 대한 속박이 아닌, 늘 기다리고 늘 애타하고 늘 새롭게 만나길 소망하는 것으로 사랑은 그려진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아가 3,1).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갈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 가 버렸다네. ... 그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아가 5,6).

아가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너무나 충만한 사랑을 기린다. 아가의 사랑은 닿을 듯 닿지 않는 서로의 거리가, 채워도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서로의 결핍이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

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플라톤의 「향연」은 사랑을 하나였다가 반으로 쪼개진,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한쪽의 결핍을 다른 한쪽이 메워주는 사랑, 이진 아가의 사랑과 결이 다르다. 사랑은 비워진 것을 채우는 완전함이 아니라, 결여를 전제로 모르는 타자를 상상하는 관계의 예술이 아닐까. 채워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풍성하고 완전해진다는 모순 형용이 사랑의 언어이며 감성이 아닐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달콤하고 그대의 향수 내음은 그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향기로운지!”(아가 4,10) 서로의 부재를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채우는 건 사랑에 대한 모욕이다. 오감을 벗어난 사랑의 상상이 사랑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사랑은 한계지워진 육체와 마음, 그리고 타자에 대한 감정 투사와 기대치를 벗어난, 그야말로 해방 자체다. 그 해방의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된다(아가 8,6에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살해베트야[:הַתְּהַלָּשׁ]’는 우리말 번역에 ‘격렬한 불길’로 번역되었지만, ‘하느님의 불길’이라고 직역된다).

결여와 부족을 껴안는 사랑, 그 속에 펼쳐지는 해방의 가치는 예수가 보여줬다. 힘없고 무능하고 거기에 완고하기까지 한 인간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한 이가 예수다. 예수는 아가의 여인이다. 결핍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 예수 안에서 사랑에 대한 경외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 밀려든다. 사랑을 감히 알지 못했고, 사랑을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는 아가의 여인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앞에서 부끄러이 고백한다. 이제껏 사랑의 이름으로 저지른 나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소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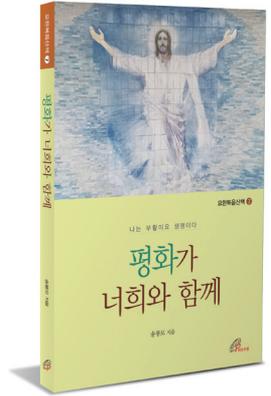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복음산책 7



쉽게 풀이한 주님 부활과 부활신앙 · 부활신학

송봉모 신부의 요한복음산책 시리즈 마지막 책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요 뿌리인 주님 부활을 다룬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대한 강해입니다. 요한복음 신학과 성경 주해를 역사 · 문화 · 문학적 배경과 함께 살피며 설명하기에 내용뿐만 아니라 저술된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기에 우리의 신앙도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읽다 머물게 되는 작고 큰 궁금증,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재밌게 풀어주고, 요한복음 신학을 맛 들이게 하는 친밀한 안내자로 궁금증이 생기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을 때마다 찾아 펼치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송봉모 지음 | 368면 | 17,000원 | 바오로딸

양승국 신부의 친절한 기도 레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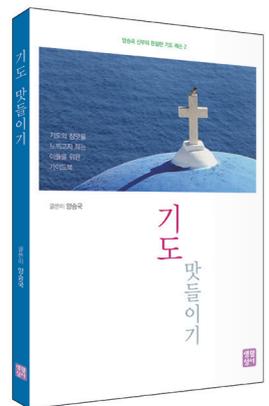
기도 맛들이기



기도의 참맛을 느끼고픈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기도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 『양승국 신부의 친절한 기도 레슨』의 후속편인 이 책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기 쉽고, 하기 쉽게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기도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기도의 체험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또한 다양한 기도 방법론과 성인들의 일화 그리고 어록 등을 통해 독자들을 흥미롭고 진지하게 기도로 초대하며, 기도의 맛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수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양승국 지음 | 184면 | 13,000원 | 생활성서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사목방문을 준비하며

8월 10일 목요일

“아주 기분 좋은 항해 끝에 7월 31일, 홍콩에 도착했다.”라는 로베르 신부의 편지를 받았다.

8월 11일 금요일

대성당 내진(內陣)의 칠이 너무 벗겨지고 너무 더러워서 얼마 전에 다시 시작했던 페인트칠이 끝났다.

8월 15일 화요일

아주 좋은 침례날(성모승천대축일)이었다. 그러나 성당 얼마나 비좁은가! 저녁때에는 학생들의 훌륭한 축제가 있었다.

8월 19일 토요일

나는 한 일본인 도시의 시장인 기구치(菊池) 씨의 방문을 받았다. 내가 <경향신문>의 사장으로 있을 때 그는 <게이조 니포>(京城日報)의 사장이었다. 그를 수행한 그의 수석 비서관은 나와 구면인데, 그는 1910년 말 내가 서울의 경무총감부와 분쟁(경향신문의 폐간 관련 사건)을 했을 때 통역관이었다.

8월 20일 일요일

신심회(信心會) 성영회(聖嬰會,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아동구제기관)에 관해 선교사들에게 통지를 했다.

8월 23일 수요일

로베르 신부는 이달 16일, ‘야라’(Yarra)호를 타고 프랑스를 향해 홍콩을 떠났다.

8월 24일 목요일

나는 사목 방문에 관한 제4호 회람을 발송했다.

8월 29일 화요일

카넬 신부가 도착했다. 일주일간 가실에 지내러 갔던 소세 신부도 오늘 저녁에 돌아왔다.

8월 31일 목요일

순교자인 유스트 드 브르트리에르(Just de Bretenières, 白)의 성해(聖骸)가 오늘 프랑스를 향해 서울을 떠났다. 그의 가족인 한 해군 장교가 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순교자의 형은 뫼텔 주교가 이 성해를 넘겨주도록 메리 델 발(Merry del Val) 추기경에게 중재를 부탁했었다.

56. 사목적 전망 ①

시노드 교부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혼인성사의 은총에 힘입어 가정 사목의 으뜸 주체가 되어, 특히 “부부와 가정, 가정 교회의 기쁜 증언”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에 다가가고자 하며 “가정이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을 발견하도록 모든 가정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가정 사목은 “가정에 대한 복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곧 인간 존엄에 대한 응답이며, 상호성과 친교와 출산을 통한 온전한 성취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는 사회 조직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문화와 사회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200-201항)

대구대교구 군중후원회 창립 50주년 피정 및 감사미사

5월 5일(목) 13:00 ~ 17:0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피정 | 13:00, 강사: 김웅열(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 15:00, 주례: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모든 군중후원회 회원들과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대구주보 말씀 맞히기 정답 (부활 제2주일 대구주보 4면 말씀따라잡기)

1. 400년 2. 사라 3. 이사악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 기울이기

(플라스틱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페그롤, 낚시 도구, 폐의약품...)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68호 정답

1.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 2. 하늘 나라 3.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심,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 가량 4.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모세와 엘리야

말씀대로 하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2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5월 2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7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5.8(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본원 모임)

일시: 5.14(토) 14:00~5.15(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왜관)

문의: (010)8353-2323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원하는 곳

문의: (010)7731-4521

ofmkvocation@gmail.com

교구 외 기타 알림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날짜: 5.10~12 / 5.16~18 / 5.22~24 /
5.26~28 / 5.30~6.1 / 6.4~6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성지순례: 5.12~15 / 5.28~31

자연순례: 5.18~20 / 5.23~25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기간: 7월부터 1년(3개월 30만원: zoom)

시간: 구약(목) / 신약(수) 19:30~21:30

문의: 김성태 신부 OFM, (010)4598-6912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자: 5.8 / 5.15 / 5.22(매주 주일)

시간: 9:3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집)

문의: (010)9045-0191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5.9(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전례봉사자1(교재 있음)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8차: 5.13(금)~15(일)

389차: 7.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가톨릭 요셉발 건강회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국내성지순례 모집
부산·마산 5/30
인천·의정부 6/6, 서울 6/27

제주성지순례 3일/4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발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wedmate.co.kr 이호택(야고보)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경만(요한) 신부
1923년 5월 1일
- 최호철(안토니오) 신부
2017년 5월 2일
- 박재수(요한) 신부
1983년 5월 5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2년도 성소주일 안내

일시: 5.8(일) 13:00~16:00(15:00 미사)
장소: 남산동 신학교 성 김대건 기념관
대상: 예신 등록생
미사는 부모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성소국, 250-3071

하남아이 청년리더십 24기

일자: 5.13(금)~15(주일)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
마감: 5.7(토) / 신청비: 12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5.13(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신자 임신부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가정복음화국, 250-3077

계산본당 관리실 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업무: 주차, 환경, 경비(주야 교대근무) 등
제출 및 문의: 사무실, 254-230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분야: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제대꽃꽂이, 성가반주오르간, 이콘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자)
위치: 대구 동구 검사동
문의: 986-2077

2022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1(일반), 3508(교육)
660-5253-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성가교실): 월,화,목,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금,토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전인병원 코로나 후유증 회복 클리닉

전인병원은 효과적인 후유증 회복을 위해
의과, 한의과 통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1688-7667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바로로말 진출 50주년 감사축제

일시: 5.21(토) 15:00~16:30
1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엄마 일기
강사: 이지혜 작가
2부: 바리톤 송기창 콘서트 17:30~19:00
신청: 바로로말, (010)6681-518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 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 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정확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야양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담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